[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 내역

- 일시: 2024. 8. 12. 14:00
- 장소: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양형연구회 정기총회
-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 2024년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63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가. 권고 형량범위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

- 가) 일반사기 및 조직적 사기의 소유형을 현행 5단계에서 9단계로 추가 분류할지 여부(소극)
 - 현행 양형기준의 소유형 분류를 유지하기로 함
 - 9단계로 세분화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

2)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 가)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범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할지 여부(적극)

01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9년	6년 - 9년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11년	8년 - 13년 17년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11년	8년 - 11년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5년	11년 이상, 무기

나) 조직적 사기 정의규정의 ‘전화금융사기’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수정할지 여부(적극)

다) 심의 결과

-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

나. 양형인자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각 삭제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을 수정할지 여부(적극)

자.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나) 조직적 사기의 행위자/기타 관련 일반감경요소로 ‘일반적 수사협조’의 추가 및 그에 관한 정의규정 추가 여부(적극)

하. 일반적 수사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심의 결과

-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

2)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할지 여부(적극)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 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견해 일치로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삭제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예시를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의 항목으로 이동하기로 함

나) 조직적 사기의 감경요소인 '단순 가담'의 정의 규정에, ① '보이스 피싱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 행위분담을 하여 사실상 총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행위 분담자인 경우', ② '해당 단순 실행행위가 조직적 사기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를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지 여부(소극)

- 견해 일치로 추가하지 않기로 함

다) 일반사기/조직적 사기의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1) 특별감경인자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할지 여부(소극)

- 변경하지 않기로 함
- 변경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2)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를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로 수정할지 여부(적극)

- 견해일치로 수정하기로 함

라) 일반사기/조직적 사기의 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규정 관련 중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부분을 삭제할지 여부(적극)

- 삭제하기로 함
- 현행을 유지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마) 일반사기/조직적 사기의 감경요소인 '내부비리 고발'을 '내부고발'로 수정 및 정의규정을 삭제할지 여부(적극)

- 견해일치로 수정 및 삭제하기로 함

바) 양형인자의 정의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할지 여부(소극)

-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 추가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요소로 삼을지 여부(적극)

- 견해일치로 가중요소로 삼기로 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함

다. 집행유예 기준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일반사기 유형)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조직적 사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일반사기 유형)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바라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조직적 사기 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심의 결과

- 견해일치로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

5. 향후 일정

가. 제134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 ▣ 일시 : 2024. 9. 30.(월) 오후
- ▣ 안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